



8월 1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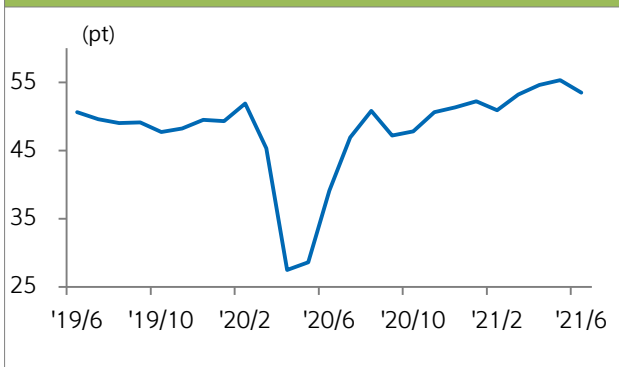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6월 코로나19 델타변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던 2분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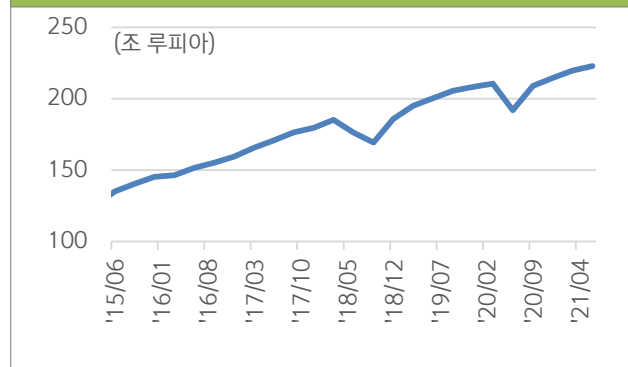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분기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 현황을 공개 결과, 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OI)는 116.8조 루피아(80.5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1분기의 111.7조 루피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20년 2분기의 97.6조 루피아에 대비하여 19.7% 증가하였음. 2분기 내국인 직접 투자 106.2조 루피아(73.2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1분기의 108조 루피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2분기 94.3조 루피아 대비 12.6% 증가하였음. 이로써 **2분기 직접투자 규모는 총 223조 루피아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4분기 연속으로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 6월 중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이 발생하고 통제조치가 이뤄졌지만, **5월 제조업 PMI가 사상최고치인 55.3pt를 기록하는 등 델타변이 이전까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였음.** 연초 빠르게 상승하던 미국 국채금리가 5월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들의 직/간접 투자 유입이 이뤄진 것도 2분기 직접 투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 2분기 직접 투자 부문의 양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 이후 확진자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동함에 따라 생산 차질 및 소비 부진이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 직접 투자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배터리~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연간 외국인/내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연간으로 900조 루피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1,000조 루피아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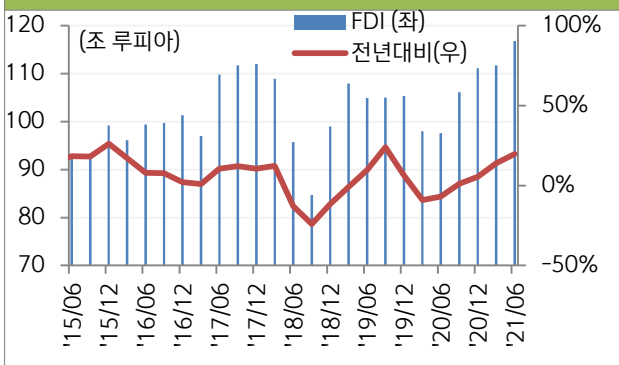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분기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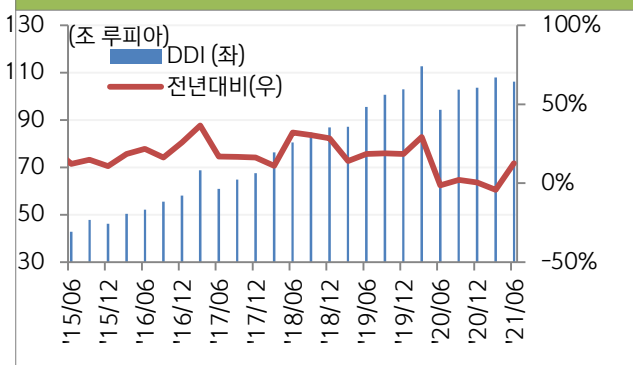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분기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



자료: BKPM

분기별 내국인 직접투자(DDI) 추이



자료: BKPM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7.30	7.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10.05	1,268.83	↑ 3.25	↑ 18.68	798.39 '20/07/31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70.04	6,101.69	↓ -0.52	↑ 1.52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586.84	52,975.80	↓ -0.73	↑ 10.13	36,553.60 '20/09/24	53,158.85 '21/07/15
중국	상해종합	3,397.36	3,550.40	↓ -4.31	↓ -2.18	3,217.54 '20/09/28	3,696.17 '21/02/19
	심천종합	2,385.62	2,468.14	↓ -3.34	↑ 2.41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9,233.22	9,839.05	↓ -6.16	↓ -14.02	8,879.58 '21/07/27	12,228.63 '21/02/17
	항셱	25,961.03	27,321.98	↓ -4.98	↓ -4.66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02.32	3,254.42	↓ -1.60	↑ 11.44	2,249.37 '20/07/31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7.30	7.23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1	2.21	↑ 0.90	↓ -36.50	2.16 '21/01/19	3.03 '20/07/30
인도네시아	6.29	6.30	↓ -1.00	↑ 40.80	5.89 '20/12/30	6.98 '20/09/10
인도	6.20	6.23	↓ -2.70	↑ 33.90	5.77 '20/08/05	6.25 '21/03/10
중국	2.86	2.91	↓ -5.70	↓ -29.10	2.86 '21/07/30	3.36 '20/11/19
한국	1.87	1.88	↓ -1.50	↑ 14.50	1.28 '20/07/30	2.20 '21/06/0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7.30	7.23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47.00	22,999.00	↓ -0.23	↓ -0.65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463.00	14,493.00	↓ -0.21	↑ 2.94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42	74.41	↑ 0.01	↑ 1.84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6	6.48	↓ -0.31	↓ -1.01	6.37 '21/05/28	7.01 '20/07/30
달러-원 (KRW)	1,150.09	1,150.57	↓ -0.04	↑ 5.85	1,081.81 '20/12/04	1,194.26 '20/07/30

# 주요 뉴스





## 중앙은행, 2022년 통화 정책 방향은 안정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美 연준의 테이퍼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되 인플레이션 부담이 심하지 않다면 낮은 금리 수준과 풍부한 유동성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중앙은행은 2022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모든 중앙은행 정책 도구들이 국가 경제 회복을 지원한 이후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Destry Damayanti 선임부총재가 말하였음. 일단 지불결제 체계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통화 정책은 현물 시장, 국내 NDF(DNDF) 거래, 유통시장에서의 정부채 매입 등을 포함한 3개 시장 개입을 통해 루피아화 환율 안정성 달성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음.
- 2022년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배경은 미국 연준이 2022년 초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음. 안정성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발생이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낮은 금리 수준과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음. 올해 들어 남미 및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변경을 진행하더라도 2022년 초에나 진행될 것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일단 유동성 축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안정성은 정부와 함께 운영중인 금융시스템 안정 위원회(KSSK)를 통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음
- 그러나, 2022년 거시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양적인 스탠스를 띄게 될 것이며, 거시 자금중개 안정비율(RIM), LTV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지표들을 완화하여 유지하는 수준으로 신용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정부의 최우선 지원 산업분야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임.
- 지급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지급 결제 시스템 청사진을 통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FPMI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들을 진행할 것임.

(출처 : Antara News)



## 중앙은행, 2021년 신용 증가율 개선을 위해 4가지 접근을 검토하고 있음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신용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은행은 진단하고 있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본 적정성이 충분하며, 중소기업 디지털화,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신용 성장을 자극할 방향임

- 중앙은행 Destry Damayanti 선임 부총재는 2021년에 인도네시아 은행권 신용 성장률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4가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올해 신용 성장률에 대해 기존에는 6~8% 수준의 회복을 전망하였으나, 이제는 4~6%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신용 성장을 가속화하는 전략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첫번째 전략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기반 수출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용 창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음.
- 두번째 전략은, 인도네시아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고 자본 적정성이 충분하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용 공급 수요에 맞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임.
- 부총재가 제시한 세번째 전략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와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특히 인도네시아 실물 경제 부문의 주요 축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임. 중소기업들의 99% 이상이 사업활동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한다면, 중소기업들의 신용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 네번째 전략은 정책 혼용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재무부, 예금보험공사는 국가 경제 회복 정책을 집행하고 은행권 중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너지와 협력을 지속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용 성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과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태도 등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눌러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 중앙은행, 경제 개혁이 건전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표명



###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 학회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생산성, 인적 자원, 자본 측면에서의 향상을 가져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구조 개혁을 통해 건전한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정책 제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중앙은행 Dody Budi Waluyo 부총재는 경제 개혁이 건전한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하였음. 실물 경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경제 성과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학회 구성원들이 인도네시아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구조 개혁과 관련한 첫번째 이슈는 생산성임. 생산성의 척도는 작업 목표 수량을 달성하고 업무의 질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것임.
- 두번째 이슈는 인적 자원 개발로, 인적 자원을 증진하고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개선하여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하였음.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서 각 산업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화를 늘릴 수 있게 된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 세번째 이슈는 자본 측면임. 민간 부문의 역할을 늘려서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 집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준다면, 투자와 관련한 자본 조달 작업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연결성 및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마다의 자본 축적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하였음.



## 상반기 금융서비스 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었음



### ❖ 요약 및 시사점

감독청의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부문의 자금중개 기능이 적절히 운영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금융서비스부문은 실물 부문에서 필요한 자금 중개를 충실히 집행하였음.

- 금융감독청(OJK)는 상반기 금융서비스 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강조하였음. 은행의 중개기능, 자본시장의 조달기능, 금융기관들의 거시안정성 비율 유지 등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지표들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여전히 회복 중인 수준이지만, 감독청이 보았을 때 대중들의 이동 제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동성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임.
- 7/23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인도네시아 종합지수(IHSG)는 6,102pt를 기록하여서 2.02조 루피아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음. 정부채에 대해서도 평균 국채금리는 대부분의 만기에 걸쳐서 13.5bp 가량 하락 안정화되었으며, 비거주자 자금은 11.73조 루피아 유입되었음.
- 7/27까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된 금액은 116.6조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1% 증가하였으며, 27개 기업이 IPO를 진행하였음. 아직 86개 기업들이 IPO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목표로 하는 조달금액 규모는 54.2조 루피아임.
- 금융감독청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를 다양한 지역에 마련해서 빠른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건부와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1천만 도즈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백신 접종 가속화를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감독청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면서,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와중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여 글로벌 금융 시장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은행들의 중개기능은 6월 신용 증가율이 전년대비 0.59% 증가한 67.39조 루피아를 기록하여서 4개월 연속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음. 반면 DPK는 11.28% 증가하는 등 예수금이 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 기준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은행은 대출이 필요한 곳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임. 보험 부문은 6월까지 31조 루피아의 보험금을 수취하였으며, 이 중 21.1조 루피아는 생명보험으로, 9.9조 루피아는 일반 보험 및 재보험으로 취급되었음. P2P도 역할을 하였는데, P2P 기업들의 대출 규모는 23.38조 루피아로 지난해 6월의 11.8조 루피아, 올해 5월의 21.7조 루피아보다 증가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 인도네시아가 탄소배출 목표 달성 하는데 3,120억 달러 필요할 것



### ❖ 요약 및 시사점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들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들을 진행중인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이를 조달할 방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큰 상황임.

-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추산치는 인도네시아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작업에 기반한 수치임.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달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배출량 대비 29%의 감축을 진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1%를 넘는 부분은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규모는 현재 전체 예산의 41% 정도를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음. 2018~202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예산의 4.3%인 70.8억 달러 수준을 기후 변화 대응에 배정하였지만, 실제 연간 필요한 금액의 3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재무장관은 설명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린 스쿠크로 불리는 금융상품을 기후 변화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2019년에는 1억 달러 수준, 2020년에는 3.7억 달러 수준을 이를 통해 조달하였음.



## 재무부, 5개 국제 무역 관련 규정에 서명



### ❖ 요약 및 시사점

재무부는 최근 몇년간 파트너 국가들과 체결한 FTA 조항들을 반영하는 재무부 장관령을 정비하였음.

우대 관세를 받기 위한 조건들과 특별경제 구역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고 재무부는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와 FTA체결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5개 규정에 서명하였음. 인도네시아와 FTA 체결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5개 재무 장관령을 통해 지원하여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무부에서는 성명을 내놓았음
- 5개 재무부 장관령은 2017년 제229호 재무부 장관령에 의해서 앞서 정의된 5개 FTA 전략에 대해 우대 관세를 책정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가이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무부 장관령은 ASEAN-호주-뉴질랜드 FTA에 대한 2020년 제 168호 규정, ASEAN-대한민국 FTA에 대한 2020년 제 169호 규정을 포함하며, 기존의 2017년 제 229호 장관령은 2개의 규정으로 분리되어 각각에 적용되는 방향임. ASEAN-인도 FTA는 2020년 제 170호 규정으로, ASEAN-중국 FTA는 2020년 제 171호 규정으로 정의될 예정임.
- FTA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재화 수입과 관련한 5개 정책은 인도네시아-파키스탄 PTA에 대한 2021년 제 70호 규정과 ASEAN-일본 CEP에 대한 2021년 제 71호 규정을 커버하게 될 것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특정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팔레스타인 MoU는 2021년 제 72호 규정으로 정비됨 향후에 인도네시아-일본 EPA는 2021년 제 73호 규정으로, 인도네시아-칠레 CEPA는 제 80호 규정으로 반영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관광 재개 연기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REPUBLIC OF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여전히 진행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및 기간 연장을 선언하였음. 이러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진행하고 있던 관광 재개 논의도 지연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은 파탄을 겪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에 따라 싱가포르와 진행하던 관광 재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확진자수가 다시 떨어지는 기미가 보일 때 관광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발리, 바탐, 빈탄 지역 등을 싱가포르와의 관광 재개 최우선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관광 재개를 연기하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빠르게 관광 재개를 진행할 것임.
- 관광 재개는 싱가포르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확진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제약 수준도 높아지면서 음식점내 취식이 금지되고, 2인 초과 모임도 금지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8/2까지 연장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완화 조치가 취해졌음. 시장에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도 오후 8시까지만으로 제한을 두었음.
- 싱가포르와 진행하고 있는 관광 재개는 관광부 장관이 올해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 부문을 재생하기 위한 주요 계획 중 하나임. 장관은 벨기에, 프랑스,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베트남 등과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약을 진행하고 있음.
- 지난해 외교부는 싱가포르, 중국, 대한민국, UAE 등과 사업 및 외교 목적의 관광 허용 협약을 체결하였음. 업무용 관광객들에게는 스폰서가 확인을 해준 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관광을 허용해주는 방식임.
- 인도네시아에서 비상 조치가 유지되면서 관광 및 창조 경제 부문의 타격은 지속되고 있음. 호텔 객실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식당 수입도 70~90% 가까이 줄어들면서 충격이 심하다고 관광부 장관은 호텔 요식업 협회 자료를 인용하였음.
- 올해 5월에 외국인 관광객 155,607명이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대비 12%에 불과한 수준임. 이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온 2,507명의 관광객 숫자는 코로나 이전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출처 : Jakarta Post)